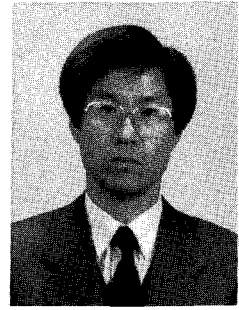


환경인에게 드리는 글



본 연합회 회장
유문하

전 국의 환경인 여러분!

한탄강 무단방류 사건으로 환경관리인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환경관리인이 이같은 일에 관련되어 환경인 명예에 먹칠한 것에 대하여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에 대통령이 앞장 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며 환경보전의 초병인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을 완화하여 전문환경인이 아닌 누구라도 환경관리인이 되도록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반기업체에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환경기술 개발에는 등한시 하면서 환경복지국가 건설을 한다며 환경보전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을 위하여 기업주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한탄강 사건을 연출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은 발전되지 않고, 법은 강화되고, 의무고용 제도는 완화되고, 기업주는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던 고충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만, 환경관리인 여러분, 오늘의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서울 '오존경보제, 서울 스모그, 한탄강 사건, 낙동강 사건, 서해안 적조 현상, 남해안 기름 유출사건 등 그렇지 않아도 생활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언제 어디에서 총체적인 환경대란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점에, 양심을 버리고 이윤에 영합하는 환경관리인이 단 한명이라도 없도록 재삼 당부드립니다.

보여주기 위한 환경이 아닌, 나를 위한 환경, 우리를 위한 환경보전을 합시다.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내가족이 영원히 금수강산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 돌려 줍시다.

환경관리인 여러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합시다.

— 우리의 다짐 —

- 환경오염방지에 위배되는 일체의 일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맙시다.
- 보여주기 위한 환경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환경보전을 합시다.
- 환경위기 의식을 가지고 환경보전, 환경관리에 대한 양심선언을 합시다.
-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새롭게 다짐합시다.
-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합시다.
-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합시다.

(정당한 환경보전 업무로 불이익을 당할시는 본연합회에서 생계보조 및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